

스즈짱 드롭킥! 4-2화 -한국어



※투표에따라 A분기로 진행됩니다.

학원에서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스즈가 기력을 잃은채 침대에 쥐죽은 듯이 누워있다.

타카세는 어째서 내게 그런 말을?

뭔가의 주술에 걸린 듯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던 스즈를 스쳐지나가며 타카세가 내뱉은 말은 아주 짧은 말이었다.

“실망시키지 말아줘.”

뭘 실망시키지 말라는걸까? 나는 나대로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는걸. 아냐, 생각하지 말자. 지금의 난 정상이 아냐. 자고 일어나서 기분을 새롭게하면 무언가 바뀌어있을지 몰라.

머릿속이 복잡해져 잠을 청하지 못하는 사이 스즈는 문득 자신의 앞에 도착한 택배를 떠올린다.

‘그리고보니 내 앞으로 택배가 왔다고했었지. 누구일까?’

포장을 벗겨내면 안에는 작은 USB가 들어있다. 스즈가 기억을 더듬어 책상 밑에서 낡은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한다.

‘퍼스컴 써보는게 얼마만인걸까..?’

USB에 들어 있던 것은 이름없이 날짜만이 적힌 동영상포맷. 하지만 이 날짜는...

동영상 파일을 실행시키면 거기엔 그날의 현장이 생생하게 기록되어있었다. 스즈에게 있어서 잊고 싶은 패배의 기억. 동영상 안의 스즈가 네로미의 거체에 깔려 안면을 수차례 구타당하고 있었다.

“뿅! 우겟! 그, 그만..! 용서해...게헛!”

“좋아~! 좀 더 울어봐~! 네 울음소리를 좀더 들려주렴~ 호라호라!”

퍽! 퍼억! 빠악!

‘손 쓸수 없을정도로 당하고 있는데.. 나, 저렇게 야한표정 짓고 있어!’

재생시간이 2분정도 지났을 무렵 스즈는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검지와 중지로 자신의 클리를 끼고 팬티위를 문지르고 있었다.

....

...

..

부원들이 모두 하교한 프로레슬링부 부실. 잊어버린 짐을 찾으러 다시 부실로 돌아온 아리사토는 아무도 없는 부실의 링에서 로프를 타고 있는 스즈를 발견한다.

"지금 뭐하고 있어?"

"아얏!"

부실의 링을 멋대로 쓰다걸린 스즈는 당황해서 균형을 잃고 떨어져 엉덩방아를 찧는다.

"아, 아리사토 선배."

"너, 얼마전에 매니저로 들어온 하급생이지? 왜 매니저로 지원한거야? 실은 레슬러로써 링에 서고 싶었던거 아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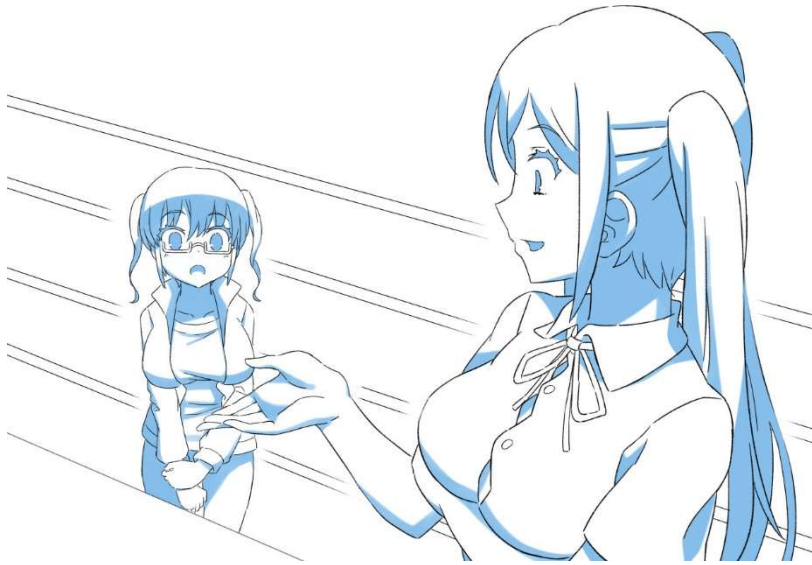
"선배 같은 일류는 모든지 알 수 있는건가요?"

"후후, 설마... 여기 매니저로 오는 아이들은 전부 프로레슬링을 동경해서 들어온 애들인걸. 레슬러로 링에 오를 마음이없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

"그치만 전 약한 사람이라 저따윈 선배처럼 될 수 없는걸요. 분명 레슬러 되도 모두의 발목만 잡으면서 민폐가 될테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지금 링에서 활약하는 선수 모두가 처음부터 강했던건 아니야.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스즈가 말없이 고개를 젓는다.



"사람은 모두 예외없이 강한 사람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프로레슬링의 링은 그걸 시험하는 장소.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때?"

동의를 구하는 아리사토의 물음에 용기를 얻은 스즈가 그 물음에 답한다.

"저도.. 선배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

...

정신을 차리면 팬티가 자신의 애액에 흥건히 젖어있는 것을 깨닫는다.

'이런 일을 하면서 선배 생각을 하다니... 난 정말 최악이야!'

....

...

..

다른 한편, 블라인드 링에서 헬즈플레이어와 진일본 프로레스 사이에서 2:2태그매치가 치뤄지고 있다. 선배인 후루하타의 복수에 맹세한 진일본 프로레슬링의 젊은 신성 이토야마는 전의에 불태우며 눈 앞의 상대를 노려보고 있었다. 하지만 헬즈플레이어의 마리아는 그저 차갑게 응시할 뿐이었다.

"헬즈플레이어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이 몸이 국외 원정에 있는 틈을 타 잘도 날뛰어주었군. 이 남자 중의 남자 이토야마 켄이치! 여자라고 해서 봐주진 않는다!"

"동감입니다. 저 또한 이딴 촌극에 1초라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흥, 여자 주제에 좋은 배짱이군. 누구보다 프로레슬링을 사랑하는 이 몸을 앞에두고 링의 모독을 입에 담다니! 이 링은 너희들 같은 어둠의 단체가 넘볼 장소가 아니라는걸 이 자리에서 깨닫게해주마!"

....

...

피칠갑 된 마리아의 롱글러브에서 선혈이 뚝뚝 매트 위로 떨어진다. 마리아에게 수차례 얻어맞은 이토야마는 전신이 파열되고 얼굴은 피떡이 되었으나 그건 그나마 나은 수준이었다. 태그파트너로 왔던 레슬러는 시스터에빌에 의해 전신의 관절이 위험한 방향으로 접혀져 의식은 둘째치고 생사조차 알 수 없었다. 사람의 형태를 잃고 고깃덩이가 된 파트너의 모습에 전의를 전부 상실한 이토야마가 실성한 듯 목숨구걸을 한다.

"헉! 사, 살려줘..!"

"고작 링에 오른걸로 강한 인간이 됐다고 착각들하는 얼간이가 자주 있지만 강함을 사칭하는 놈일수록 자신의 약함을 자각하고 있는법이죠."

마리아가 이토야마의 코 앞까지 다가와 그의 고에 발을 올려 위아래로 문지른다.

"히이이..! 히익..!"

"당신도 그렇게 생각할 터입니다. 남자 중의 남자씨."

"그, 그렇습니다. 전 여자 이하 아니 인간 이하의 별레자식입니다. 제, 제발 목숨만은.."

"그럼 이걸 필요없겠군요."

"히,히익! 그만..!!"

마리아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고향을 밟아부수자 처량한 비명이 메아리치고 이내 링 위에는 기분나쁜 정적만이 흐른다.

"항상 못 어울려주겠어라는 표정하고 있는 주제에 꽤 즐기고 있는거 아닌가요? 마리아씨."

"성격상 별레는 그냥 못 지나치는것 뿐입니다만, 그쪽은 제대로 즐기고 있나보군요. 제가 쓸데없이 죽이지말라했을텐데요."

"후후, 어지간히 사람의 죽음을 못 넘어가네요. 마리아씨는."

"절 시험하려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분이 더럽지만. 다시 한번 릴리나님의 힘을 시험하려 든다면 그냥 간과하지 않을겁니다."

"어머 무서워라~"

"뭐야뭐야? 나 빼고 이런 재밌는걸 하고 있던거야?"

어느샌가 나타난 네로미가 마리아와 시스터 사이에 끼어들어온다.



"당신입니까. 당신에겐 따로 해야할 일이 있을텐데요?"

"당신입니까. 천사는 확실히 처리했겠죠?"

"글썄~ 꽤 손봐줬으니 적당히 됐지지 않았을까?"

"...지금 뭐라고?"

"적당히 됐거나 살았거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뭐?"

'..안 좋은 예감이 들어서 친위대까지 동원했지만, 이 여자 설마했더니..!'

순간 귀를 의심했지만 네로미의 태도를 보아 아무래도 불안이 적중한 것 같다.

마리아가 전투용 태엽이 빠격거리는 것을 참으면서 되도록 상냥한 단어를 골라 이유를 확인한다.

"왜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거죠? 이 토사물녀."

"하아? 멋대로 죽이지말라거나 한건 너잖아?"

반성할 기미가 없는 네로미를 두고 쇠 귀에 경 읽기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확인차 그 이유를 설명한다.

"우리같은 이계의 존재가 아무런 의심없이 지상에서 활동할 수 있는건 릴리나님의 능력으로 지상의 미디어를 이용한 광역의 인지왜곡 걸고 있기 때문. 멍청한 당신이라도 그건 알고 있겠죠."

"아는데~?"

"하지만 동족의 죽음 같은 강한 간섭이 미디어로 노출되면 릴리아님의 왜곡능력에도 큰 부하가 걸린다.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 무분별한 살인은 자제하라고 분명 말씀했습니다만, 천사와 일반인은 그 경중이 다르겠죠!"

끝으로 갈수록 들으란 듯이 분노를 섞어 목소리를 높였지만 네로미는 여전히 안하무인한 태도로 일관할 뿐이었다.

"흐응~ 어쩔일로 네 친위대가 움직였나했더니 그런 이유였나. 뭐 벌써 절반 당했지만. 그래서? 결국 강아지 짱에게 어울리는 상대는 나말곤..."

"당신은 이제 됐습니다. 이 건에선 손 떼세요."

"하아~!? 지금 잘 되는 중이거든! 좀만 있으면 강아지짱은 내.."

"당신의 더러운 취미따위 어찌되든 좋습니다. 그 천사는 제가 숨통을 끊겠어요."